

NYMEX

重質燃料油 先物去來 개시

뉴욕 商業去來所(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는 지난 10월 2일부터 重質 연료유(Residual Fuel Oil, No.6 연료유) 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이 연료유 선물거래는 싱가포르 SIMEX(89.2), 런던 IPE(89.9)에 이어 금년들어 3번째로 개설된 것이다. 거래 조건은 이 거래소내 다른 석유상품과 유사하다. 同 거래는 연료유 생산자와 加工業者, 최종수요자, 트레이더, 都賣商을 위한 헤징역할과 가격정보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SIMEX와 IPE의 경우에 비해 NYMEX연료유 선물거래의 장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潛在的 거래 참여자들은 동 거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은 직접참여를 유보한채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重質 연료유 선물거래의 필요성은 1980년대 중반 天然가스의 공급확대로 인한 産業 및 發電부문의 가격경쟁 심화로 중질연료유의 수요자들이 長期공급계약에서 現物市場으로 去來先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수요자들은 가격변동이 심한 시기에 이 거래를 활용함으로써 가격변동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다. 중질연료유는 주로 발전용 또는 선박수송용(Bunker Oil)으로 사용된다. NYMEX의 거래조건을 보면 對象油가 黃含量 1.0%이하, 열량기준 150,000BTU/갈론, 거래 단위 1000배럴, 引受渡地點 Houston Ship Channel, 最小가격변동폭 1¢/배럴, 日일최대가격변동폭 \$ 1/배럴(\$2/배럴까지 확대가능)로 되어 있다.

거래참여자들이 중질 연료유거래의 성공가능성에 회의를 품는 가장 큰 이유는 중질연료유 現物市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美國의 중질연료유 시장 규모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휘발유나 燬房油市場에 비해 훨씬 작다. NYMEX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휘발유수요는 8백만b/d, 난방유는 2.5백만b/d인데 비하여 중질연료유 1.4백만b/d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트레이더들은 동거래의 장ைய인을, 1) 大型

소비자인 전력사의 불참, 2) 거래대상 연료유의 제한(총 거래량의 30~40%), 3) 연료유시장의 寡占의 구조의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총수요의 71.2%(약 1백만배럴)를 차지하고 있는 發電부문중 절대다수의 民間전력회사가 公共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s)의 규제 때문에 직접적인 선물거래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력회사는 油價가 바닥세일 때 在庫量 증대를 목적으로 原油선물시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둘째, 중질연료유는 황함량 0.3~3.5%의 다양한 범위의 사양(Specifications)으로 생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설비에 알맞는 사양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특정시장을 選好하고 있다. 셋째, 일견 중질연료유시장의 유동성이 큰 것처럼 보이나 황함량 1.0%의 연료유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시장이 Hill석유사(설비능력 30만b/d, 대형 트레이더인 Phibro Energy의 子會社)와 Florida 전력사(FP&L, 연간소비량 15~20백만 배럴)가 각각 공급과 소비 兩側의 최대회사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연료유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大型會社의 시장관점에 대해 NYMEX는 과도한 투기성거래 규제와 시장내의 감시시스템에 의해 寡占 방지와 유동성저하 문제가 해결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美商品先物去來 委員會(CFTC)는 引渡지점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限月物의 투기성 거래 제한규정 때문에 인위적인 가격조작과 왜곡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측은 앞서 언급한 황함량 1%이상 연료유의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은 NYMEX의 중질연료유 선물거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에너지 동향)